



독일 첫번째 선교편지

임용탁, 김진옥 선교사

1. 저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2016년 11월 태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태국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대학생 사역, 카페 사역을 통한 문화사역, 태국 교회 개척 사역등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복음을 위한 무익한 종 삼으신 것이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사도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위해 몸부림 쳤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빛진자

되어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한줄기 빛과 같은 복음의 빛 되어 살았던 그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고난에 굴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감당했던 이 사명은 지금 이 땅의 교회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물인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삶을 묵상할 때면 저 역시 이런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면 내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2024년 나이 50에 독일로 왔습니다. 주변에 저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나이에 고생 그만하고 정착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저 역시 제가 목사요,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마땅히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3명의 자녀들(첫째, 성민이는 군 입대를 위해 한국에~ 둘째, 유민이는 남은 공부를 마치기 위해 태국에~ 셋째, 헤인이는 말도 안통하는 이곳 독일에서~)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의 이 부질없는 선택에 모든 가족들이 지지하고 각자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2. 태국 사역의 위임



하나님께서서는 그간 태국 사역을 통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때 무엇보다 그간 걸어왔던 태국 사역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가장 컵습니다. 지금까지 감당해온 태국 사역들,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했던 태국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세울수 있을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묵상하던 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뒤 3주 정도 있다가 그 곳을 떠났

지만, 교회는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저의 착각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질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는 떠났지만, 저희가 개척했던 “The Way Church”는 감사하게 저희가 사역 했을때 보다 더 확장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3가정이 모여서 팀 사역을 시작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C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C국의 선교사 지도자 재교육과 회복프로그램을 위한 공동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2가정은 오래전부터 이 사역을 진행해오셨고 이 사역과 관련하여 저희 가정 역시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작년부터 팀사역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국에서 나올때 감사하게도 남겨진 2가정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사역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에는 오래전부터 교제해왔던 태국 목사님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그 교회의 필요를 보시고 저희 교회로 들어와 교회가 더 많이 확장되어 졌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희가 감당해왔던 이 모든 사역들이 저희가 있을때보다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태국 교회는 더욱 건실하게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깨닫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3. 새로운 사역을 위해 정착한 곳은 Nürnberg에 있는 유학생 교회입니다. 이 도시에 적지 않는 한국 유학생들 사역을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유학생 교회에는 담임목회자가 없었고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이 교회 사역 요청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태국에서 청년들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독일에 와 있는 한인 유학생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신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 유학생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청년들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사역을 통해 현재 한국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가운데 이 유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 앞으로 교회 기둥과 같은 자들로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 사명자로 세워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편, 저희가 이곳에 부름을 받고 왔지만, 유학생 교회라는 특성으로 인해, 현재 이 교회에서는 목회자 사례를 하지 못한 곳입니다. 이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파송교회인 서울 성현교회를 비롯한 여러 협력교회의 이해와 지원이 있었기에 이곳에 나올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크지요~ 그럼에도 이곳 독일에서의 생활은 기존 선교비로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나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이곳 독일에서 어떻게 살아낼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케어 할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듯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처럼 형편과 처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이곳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4. 2달간 선입국 준비 / 집, 비자, 학교

저는 지난 5월에 독일에 먼저 들어와 집렌트와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곳에 들어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7월에 들어와 합류하여 어렵게 얻은 집에서 함께 하게되었습니다. 비자 준비를 위해 먼저 독일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현재 비자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회 법인을 만들어 비자를 준비하려 했지만, 법인 설립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대신 임시 비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난민들 유입으로 인해 난민을 우선 정책을 세워 많은 혜택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난민이 아닌 까닭에 난민보다 더 열악한 비주류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직장에 다닌다면 그나마 보장을 받는 대상이 되지만 저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매한 신분자로 취급 받는 것 같습니다. 법인설립이 잘 마무리 되어 비자 발급을 받을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1. 처음 이곳 유학생 교회에 왔을때, 10여명의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제가 부임해 온뒤로 교회가 안정되어 이제는 2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교회의 예배 장소가 조금은 협소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 드릴수 있는 합당한 장소와 이곳 유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 나가는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떠나온 태국교회와 사역들이 남겨진 선교사들로 인해서 사역이 잘 정착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욱 쓰임받고 성장하는 선교지가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현재 첫째 아들(성민)은 군입대(10.14)를 위해 한국에 둘째 아들(유민)이는 고등학교 마무리를 위해(12월까지 태국에서) 태국에 셋째 딸(혜인)이는 현재 이곳에서 독일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들과 막내 딸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임용탁, 김진옥 선교사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에는 유학생 외에는 한국 사람이 없어서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넘어서야 할 장애가 있습니다. 이곳 독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리며, 선교지 이동으로 인해 늘어난 생활비와 사역비(유학생들 섬기는 재정, 차량구입)로 인해서 이를 위한 기도와 선교교후원자 및 교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